

말레이시아 정치엘리트 인터뷰를 통한 현지조사: 방법론적 성찰*

황 인 원**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말레이시아 정치갈등구조의 변화와 체제유지라는 논문으로 2001년에 호주국립대(AN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은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 집권세력의 체제유지방법이 정치적 갈등구조의 변화에 따라 종족 간 타협의 정치에서,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중심으로의 권력집중을 거쳐, 마하티르(Mahathir Mohamad) 총리 시기에 이르러 권력의 사유화로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의 논문에서는 말레이시아 집권엘리트의 정치행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종족정치(ethnic politics)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¹⁾ 일부는 계급정치(class politics)라는 다소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2-B00018).

**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hwang@gnu.ac.kr)

1) 종족적 관점에 기초한 협의주의적 모델로써 말레이시아 정치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Milne 1967; Vorys 1975; Mauzy 1983; Onglili 1985; Means 1991; Case 1996; Milne & Mauzy 1999 등이 있다.

비현실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²⁾ 권력정치(power politics)라는 대안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Hwang 2001).

논문의 집필을 위해서 1994년 5월부터 1997년 1월까지 2년 8개월, 1997년 말부터 1998년 초까지 3개월, 1999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을 포함하여 총 3년을 조금 넘게 말레이시아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렇듯 현지조사에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미숙한 연구자의 시행착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1998년 당시 정국을 안와르(Anwar Ibrahim) 부총리의 해임, 출당, 구속 그리고 개혁정국(Reformasi)이라는 격변의 장으로 몰아간 마하티르 탓(?)도 컸다. 당시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정치적 파국이 필자에게 현지조사 기간의 연장, 새로운 논문 챕터 추가 등으로 족히 2년 이상 학위 기간을 연장시켰으니 말이다. 그래도 이러한 우여곡절이 2003년에 동남아 관련 출판으로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에서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케 하는 소중한 토양이 되었다(Hwang 2003).

마하티르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학위논문의 출판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한 ISEAS 측에서 2002년 초에 출간을 위한 모든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마하티르 사퇴 2주 전까지 무려 1년 반이나 붙잡고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절묘한 출간 시기 덕분에 필자의 책은 말레이시아의 대표 일간지등에 크게 소개되었고, 대학 서점은 물론 시중의 대형 서점에서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유명세를 탔다. 아무튼 마하티르 전 총리에게 여러모로 감사(?)할 따름이다.

필자가 수행한 현지조사는 크게 두 가지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성격상 현지조사라기 보다는 ‘현지생활’에 가까운 2년 8개월의

2) 계급적 관점에서 말레이시아 정치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Cham 1975; Lim 1980; Brennan 1985; Halim 1982; Jome 1988 등이 있다.

기간이었다. 이 시기 필자는 가족과 함께 쿠알라룸푸르에서 전형적인 도시생활을 하면서 주로 문헌자료 수집에 집중했다. 두 번째는 1998년 정치적 격변기를 전후로 약 5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하였던 시기였다. 이때는 홀로 말레이시아에 머물며 100여 차례가 넘는 정치엘리트와의 인터뷰에 집중하였던 고난의 시기였다. 인터뷰가 연구방법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채 인식하지 못했던 필자에게 이 시기는 그야말로 시행착오의 절정기에 해당했다.

이 글에서는 호주에서의 유학 및 현지생활로 이어지는 ‘시간여행’과 정치엘리트들과의 인터뷰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여행’이라는 두 가지 맥락을 통해 정치엘리트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정치적 격변의 장에서 만났던 정치엘리트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그동안 ‘정치적 안정’과 ‘종족적 이해관계’라는 외피로 포장되어 간과되었던 말레이시아 ‘권력정치’의 단면을 보여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자의 경험이 동남아를 전공하는 후배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양질의 현지조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 ‘시간여행’의 시작

필자가 현지조사 경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호주의 유학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³⁾ 어떻게 전공지

3) 필자는 호주교육원을 통해서 호주정부장학금을 받으며 유학을 결정했다. 그 명칭은 바뀌었으나 호주 연방정부는 매년 한국 학생들에게 석사 및 박사과정의 전공영역과 관계없이 생활비와 학비를 포함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 교육계, 비즈니스 분야 그리고 석사, 박사, 박사 후(Post-doctoral) 과정의 학생에게 단기간(1개월-6개월)에 걸친 연수지원 장학금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endeavourawards.or.kr>)를 참조할 것.

역을 말레이시아로 정하게 되었는가? 왜 말레이시아에서 2년이 넘는 현지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정치엘리트에 관한 인터뷰를 논문 작성의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할 생각을 했는가? 등 유학시절부터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자에게 ANU의 정치사회변동학과에서 보냈던 시간은 동남아 현지생활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

ANU가 동남아연구의 최적이라는데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동남아 전공자가 즐비했다. 필자의 지도교수이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전공으로 유명한 해롤드 크라우치(Harold Crouch), 필리핀과 베트남 전공자인 벤 커크빌릿(Ben Kerkvliet), 베트남 역사의 데이비드 마(David Marr), 동남아 역사의 앤소니 리드(Anthony Reid), 인도네시아 경제의 할 힐(Hal Hill) 등 거물급이 즐비했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중견 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다수 포진해있었다. 동남아 여러 국가의 전, 현직 정치인들이 특강 또는 단기로 ANU 방문을 많이 한다는 것 또한 독특하였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런 학계, 정계, 관계, 재계 인사들이 3, 4일이 멀다하고 동남아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특강에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발하게 공유한다는 것이었다. 학계, 관계, 재계가 별도로 자기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좀처럼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무척이나 부러운 부분이였다.

1. 전공지역 정하기

사실 필자가 처음부터 정치사회변동학과에 입학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국제관계학과로 입학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 국제관계학과는 교수진이나 학생들의 연구분야가 동남아와는 전혀 상관

이 없었다. ‘여기서 공부할 바에야 뭐 하러 호주까지 왔는가?’라는 생각에 시작부터 심란했다. 복잡한 마음에 결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을 여행하면서 전공지역을 선택해보기로 결정했다.

세 나라를 선정한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당시 국제관계학과의 지도교수가 한국과 동남아에서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상관성’이라는 연구주제를 은근하게 권하고 있었고, 그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국가들이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였다. 그야말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방식’으로 전공지역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다. 태국은 너무 정신도 없고 의사소통의 문제가 큰 장애물로 다가왔고,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황당한 과정을 통해 선택한 결론이 말레이시아였다. 당시 한국은 민주화 이행을 겪으면서 소위 근대화 혹은 정치발전론의 이례적인 사례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탈바꿈하는 전환기에 있었고, ‘과연 후발신흥공업국인 말레이시아는 어떠한 발전경로를 겪고 있을까?’라는 호기심도 전공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호주로 돌아오기 전에 인사차 모교인 서강대학교를 방문하면서 다시 고민이 시작되었다. ANU로 유학을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신윤환 교수님께서 한국과 비교하기 보다는 말레이시아만 전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신 것이다. 한국의 동남아 전문가 현황을 고려할 때 양자 혹은 다자간 비교보다는 일국에 대한 심층적인 지역연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다른 교수님들도 호주에서 굳이 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셨다. 호주로 돌아오는 여정 내내 이런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ANU로 돌아오자마자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한국은 잊고 말레이시아에 집중하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동남아를 주로 연구하는 정치사회변동학과로 전과를 했고, 지도교수도 크라우치 교수로 바꾸었다. 이때가 호주에

온지 한 학기가 지난 시점이었다.

2.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그런데 그때부터 ANU에서 본격적인 이방인 생활이 시작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전과를 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학부에서 동남아 관련 수업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어 수업 첫 시간부터 발생했다.⁴⁾ 신윤환 교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인도네시아어라는 얘기를 들었기에 부담 없는 수업이려니 생각했는데, 100명에 가까운 수강생들이 약 10여명씩 소그룹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간단한 회화를 부담 없이 구사하는 것이었다. ‘첫 수업에 알파벳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마주보고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 호주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많이 선택하는 언어가 인도네시아어라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지척에 위치하면서 인구는 호주의 10배가 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호주 사람들의 관심과 경계는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다. 호주의 가상적이 인도네시아라는 것도 그때 알았다. 아무튼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중·고 시절에 인도네시아어를 배운 경험이 있었고, 이런 친구들과 학점 경쟁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생각보다도 컸다.

정치사회변동학과의 또 다른 특징은 구성원들이 ‘전공’과 ‘생활’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과 교수진은 물론 동료 학생을 통틀어서 본인의 전공지역 언어는 물론 현지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혼자 뿐이었다. 며칠 동안의 동남아 여행은 감히 명함도 못 내미

4) 당시 ANU에는 말레이어 과목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말레이어와 인도네시아어의 경우 그 뿌리가 같아서 한 언어를 습득할 경우 상호 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우리의 경상도와 전라도 말의 차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과 교수진의 대부분이 자신의 전공지역 출신과 결혼을 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였다. 필자의 지도교수인 크라우치 교수도 부인이 말레이시아 출신 역사학자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에서 결혼해서 유학을 온 지극히 정상적인 내가 오히려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더구나 유학을 올 때 하나였던 아이가 곧 둘로 늘었으니 ‘이 친구가 정말 동남아를 전공하기는 하려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렇다고 내가 다시 결혼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 동남아를 전공한다고 해서 꼭 현지인을 부인으로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일”과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등 많은 질문과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결혼 문제는 그렇다 쳐도, 현지어 구사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사정에 너무도 문외한인 내가 정치사회변동학과 박사과정에 있다는 것이 스스로 너무도 어색하고 민망하기까지 했다. ‘과연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가?’ ‘괜히 남의 다리나 굽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괴감에 가슴이 답답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한편, 정치사회변동학과 구성원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교내 대학원 기숙사에 있는 바(bar)에서 맥주를 마시며 친분을 다지곤 했다. 금요일 모임은 학과의 오랜 전통으로 학과 구성원은 물론 주변 학과의 동남아 연구자들과의 술자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곤 하였다. 금요일 모임에 매번 참석하는 것은 필자에게 큰 곤욕이었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에 매번 방문을 두드리는 지도교수의 성의(?)를 외면할 수 만도 없었다. 술자리의 내용은 온통 동남아 얘기였고, 그 중에서도 최근의 동향과 자신들이 만났던 현지 전문가들과의 에피소드 등이 주된 주제로 많이 올랐다. 현지 경험이 전무했던 필자에게는 그저 어색하게 웃는 일만이 능사였다. 한 주일을 끝내고 편하게 한잔해야 할 자리가 마치 ‘내면의 자아비판 장’과 같았다. 아무튼 10년에 가까

운 박사과정 기간 중에서 초기 2년의 ANU 생활은 가장 어색하고 이방인과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다.

3. 지도교수의 조언

이 시기에 이방인의 낯설음을 달래는 최선의 방법은 말레이시아 전공서적과 논문을 많이 읽는 일이었다. 종종 지도교수에게서 읽을 책과 논문 리스트를 받아오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연구제안서 (research proposal)를 제출하였다. 당시 필자의 관심은 주로 ‘지극히 분열적인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동시에 구가할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였다. 그때 지도교수에게서 받았던 코멘트들을 지금 다시 읽어 보아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성품 좋기로 소문난 크라우치 교수는 내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게 조심스레 “네가 제기한 문제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하지만 아직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 네 연구가 다른 학자들과 달리 무엇이 새로운지 고민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을 자주 해주었다. 1993년 10월경에 받은 코멘트에는 심지어(?)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비교하는 원래의 관심사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 위기였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말레이시아에서 20년 가까이 생활한 크라우치 교수에게 필자의 관심은 별로 신통치 않게 여겨졌다.

결국 무작정 말레이시아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크라우치 교수에게는 “내가 동남아에 관해 석사를 하지 않았으니 1년 정도 말레이시아에서 살다 오겠다”고 말했다. 1년 정도 살면서 천천히 연구주제를 생각해보고, 돌아와서 연구의 틀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1년 정도 현지조사를 할 요량이었다. 내 말을 들은 지도교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잘 생각했다. 내가 처음부터 네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내심 속으로 ‘그렇다면 벌써 1년 전에 진작 애

기해주지'라는 율화가 치밀었다. 한국처럼 지도교수가 학생을 앞서 가며 진로를 걱정해주는 분위기에 익숙했던 나의 불찰이었다. 이때의 경험 때문에 필자는 지금도 유학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지도교수를 적극적으로 만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밝혀라”는 말을 꼭 하곤 한다.

말레이시아로 떠나기에 앞서 크라우치 교수는 내게 두 가지 조언을 했다. 하나는 연구 주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과금도 내보고 큰 아이 유아원도 보내며 살다가 오라는 것이었다. 원래 1년은 공부 욕심을 내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그래도 좀 황당했다. 그리고 내게 자신이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현지전문가 명단을 보여주며 그 중에서 두 명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다. 명단에는 언뜻 봐도 족히 5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보였다. ‘그런데 단 두 명이라니, 너무 야속한 것 아닌가?’ 하지만 이어지는 크라우치 교수의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내가 이 리스트를 네게 주면 너는 말레이시아에서 스스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연결해주는 두 명을 출발점으로 너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봐라. 그것이 네게도 좋고, 나도 후에 너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려 덕분에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시점에 필자가 지도교수와 사뭇 다른 현지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사려 깊은 조언인가?

당시 크라우치 교수가 소개시켜 준 사람이 말라야대학(Universiti Malaya) 역사학과의 리감힝(Lee Kam Hing)교수와 전직 외교부장관이자 Semangat 46의 수석부총재를 지냈던 라이스 야뎀(Rais Yatim)이었다.⁵⁾ 리감힝 교수로부터 말라야대학에서 2년 반 동안 쾌적한

5) Semangat 46(46의 정신)은 1987년 UMNO 당권경쟁에서 패한 라잘레이 함자(Razaleigh Hamzah)가 결성한 정당이다. 1946년은 UMNO가 창당된 연도로서 Semangat 46은 자신들이 UMNO의 직통을 이어받은 정당임을 주창하는 것이었다.

연구실을 제공받았고, 훗날 필자가 현지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첫 단추 역할을 했던 중국계 일간지(The Star)의 샴술(Shamsul Akmar) 기자까지 소개받았으니 지도교수의 뜻이 헛되지 않았다.

비자문제는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말라야대학(Universiti Malaya) 언어센터(Pusat Bahasa)의 말레이어 과정에 등록하여 학생비자로 바꾸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어학연수생의 가족까지 체류비자를 발급해주었으니 온 가족이 함께 생활했던 필자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이 제도도 나중에 어학연수생에게는 가족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바뀌었으니 여러모로 운이 좋았다. 외국 연구자가 말레이시아에서 현지조사를 할 경우 총리실 산하의 경제계획부(EPU: Economic Research Unit)에서 연구비자(research visa)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면 오히려 연구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크라우치 교수의 조언에 따라 ‘관광비자’와 ‘학생비자’라는 조합을 선택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필자가 총 3년이 넘는 현지조사 기간 중에서 연구비자가 없어서 곤란을 겪은 적은 없었다. 지도교수의 20년 가까운 현지생활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대목이었다.

4. 조모(Jomo) 교수를 만나다

이렇게 1994년 5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당시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겨우 100일이 지난 상황이어서 아내와 아이들은 1994년 말에 말레이시아로 합류했다. 이때부터 약 2년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생활했다. 1년의 체류계획을 넘기고 2년이 지나자 크라우치 교수로부터 경고 메시지가 날라들었다. “다른 학생들의 경우를 볼 때 현지생활 2년이 넘어가면 [학업을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살게 되더라”라는 다소 섬뜩한(?) 내

용으로. 정신을 차리고 귀국한 것이 1997년 1월이었다.

1997년 1월 호주로 돌아오기 전까지 필자는 주로 말라야대학에서 하루를 보냈다. 일주일에 3일 하루에 4시간씩 말라야대학 언어센터에서 현지어를 배우고, 부족한 부분은 말라야대학 학생으로부터 개인교습을 받았다. 그러나 쿠알라룸푸르가 영어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이어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아직도 이곳에서의 생활이 많이 남아있고, 또 앞으로 다시 현지조사를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만큼 절박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아무튼 말레이시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현지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가장 후회로 남는 일이다. 아마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계속 혼자서 현지생활을 하였으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내에서 말레이시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전공자들이 동남아 타 지역 전공자들에 비해 현지어 구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비단 가족 탓만은 아닐 것이다.

리감형 교수가 마련해준 필자의 연구실은 말라야대학 중앙도서관 근처 이슬람연구학 건물 1층에 있었다(지금은 경영회계학부 건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바로 옆방이 조모(Jomo Sundaram) 교수 연구실이었다. 조모 교수는 웬만한 동남아 연구자라면 익히 이름을 들었을 정도로 명망있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학자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치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조모 교수는 계급적 관점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다(Jomo 1988). 크라우치 교수의 오랜 지인이기도 했고, 현지에서 학문적 조언을 꼭 받으라고 추천했었다. 필자가 ANU에서 처음으로 완독했던 책이 조모 교수의 것이기도 했다. 연구실 위치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기에 나무랄 때가 없었다.

필자가 옆방의 조모 교수를 처음 찾아간 것은 연구실에 자리를

잡고 거의 몇 개월이 지나서였다. 그냥 인사하러 가기도 그렇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한다고 준비하다보니 그렇게 늦어졌다. 문제는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문을 두드리고 소개를 하려는데,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 너는 왜 매일 한국 사람하고만 어울려 다니느냐?”며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자느냐? 책은 하루에 몇 시간 읽느냐?”고 묻는 것이다. 얼떨결에 “8시간 자고 8시간 책을 읽는다”는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 이제까지 읽은 책의 목록과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10개 적어오라”는 말을 듣고 문을 나섰다. 첫 만남에 걸린 시간이 채 2분도 걸리지 않았다.

연구주제들을 정리해 며칠 뒤에 다시 조모 교수를 찾았다. 내 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보다니 이번에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주제”라며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줄을 그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 중에는 필자의 박사논문 주제인 마하티르의 정치리더십 연구도 있었다. 그리고 “너는 중국인처럼 보이는 동양인이고, 언어의 제약으로 말레이 정치엘리트에 관한 연구는 할 수 없다. 말레이들이 차라리 백인에게는 속내를 열지 몰라도 중국인처럼 생긴 네게는 아니다. 차라리 한국과 말레이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종족관계의 현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조모 교수와의 두 차례 만남은 나를 크게 위축시켰고 그 후로 말레이시아를 떠날 때까지 그를 피해 다녔다(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복도를 살폈다). 이때부터 ‘뚜렷한 목적과 준비가 없이는 현지 전문가를 만나지 말자’는 생각으로 말레이시아에서의 남은 시간을 보냈다. 이방인으로 살았던 ANU에서의 생활이 여기서도 시행착오로 연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조모 교수와의 만남은 한편으로 필자에게 약이 되었다. 이후로 나의 관심이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의 문제’에서 ‘말레이시아

종족정치의 본질'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말레이시아 정치엘리트들이 세간의 평가대로 종족적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가?” “말레이시아에서 종족정치는 정말 변할 수 없는 상수와 같은 존재인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며 말레이시아 현지생활의 하반기를 보냈던 것이다.

5. 문헌자료 수집하기

2년 반의 기간 중에서 전반부가 그야말로 ‘생활하기’였다면, 후반부는 ‘문헌자료 수집하기’로 축약된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살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가면 어찌나’라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유학을 떠나기 전에 신윤환 교수님이 해주셨던 ‘보험 들기’라는 말도 떠올랐다. 그것은 박사과정에서 너무 크고 거창한 이론에 얽매이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자 정신’을 갖고 특정 주제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고 문헌, 정보를 수집하다보면 나중에 최소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자료가 축적될 것이고 이것이 학위과정에서 보험을 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라야대학교 도서관에서 본격적으로 단행본, 잡지, 논문들을 복사하고 분야별로 제본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신문자료의 복사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당시 말라야대학교 도서관에서는 1970년대 이후 주요 신문들을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나누고, 각 분야를 다시 핵심 주제어 단위로 분류해서 해당 기사를 일일이 스크랩해서 제본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특정 이슈나 사건 등에 대해 신문보도의 성향, 관련자의 입장 등을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 소중한 1차 자료였다. 지극히 노동집약적인 신문 스크랩 작업을 도서관 직원들이 끝도 없이 계속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며 필자도 정치관련 자료의 단순한 복사 작업을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했다. 대출도 하루에 2권으로 제한됐고, 더욱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신문자료였기에 도서관 내에 설치된 복사기를 몇 개월 동안 눈치 보며 전세를 내야했다.

지금도 UMNO, MCA, PAS, DAP, MIC, 마하티르, 라잘레이... 등의 라벨이 붙어있는 신문 스크랩 모음집이 필자 연구실의 한 부분을 가득 차지하고 있다.⁶⁾ 필자의 학위논문에서 특정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시기를 넘나들며 인용되고 있는 것은 모두 이때 수집한 신문자료 덕분이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쉽게 신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으나,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정치 관련 신문자료는 말라야대학교의 도서관과 필자의 연구실 외에 다른 곳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다고 자부한다.

말라야대학교 도서관 외에 필자가 공을 들였던 곳은 중국계 야당인 민주행동당(DAP) 자료실이었다. 1996년 중반 뻬탈링 자야(Petaling Jaya)에 위치한 DAP 당사를 방문했던 필자는 당사 맞은편의 허름한 자료실에 쌓여있는 DAP의 각종 문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특히 DAP 총재이자 당시 야당지도자였던 림킷샹(Lim Kit Siang)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작성했던 보도자료와 정세분석 묶음들이 눈에 띄었다. 커다란 책꽂이를 가득 메울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다.

당시 자료실은 테레사 콕(Teresa Kok)이라는 30대 초반의 여성이 지키고 있었는데 불쑥 방문한 나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역력했다. 한국인이고, 호주에서 왔고, 말레이시아 전공하고, 현재 말라야대학교에 있고.... 어느 하나라도 걸리라는 심정으로 주저리주저리 소개를 했다. 다행히 이 친구도 말라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료실에서 ‘죽치고 있기’를

6) MCA(Malaysian Chinese Association, 말레이시아화인협회); PAS(Parti Islam Se-Malaysia,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 DAP(Democratic Action Party, 민주행동당); MIC(Malaysian Indian Congress, 말레이시아인도인회의)

반복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저기 있는 자료들을 내가 모두 복사하고 싶다”며, “만약 이 허름한 곳에 화재라도 나면 저 소중한 자료가 다 사라질 텐데, 내가 한 부 복사해서 잘 보관하고 있겠다”라는 이유를 댔다. 그녀는 황당해하다가 사뭇 진지한 내 모습을 보고 보스(boss)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결국 립킷샹의 허락을 받고 몇 주에 걸쳐서 모든 자료를 복사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필자가 립킷샹, 테레사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였다. 1998년 초 다시 현지조사를 왔을 때 립킷샹과는 ‘그때 자료를 다 복사해간 한국인’이라는 인연으로 인터뷰를 시작했고, 테레사 측은 1999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현재 DAP 출신의 4선의원이 되었다. 필자는 지금까지 두 사람과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에 1년을 살기로 계획했던 시간이 어느덧 2년 반이 넘게 지났다. 그냥 살아보자는 막연한 생각으로 출발했으나, 돌이켜보면 이때의 생활이 필자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현지에 대한 감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Ⅲ. “절실함”은 나의 무기

1997년 1월 호주로 돌아오면서 필자는 다시 현지로 떠날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현지생활’이 아닌 ‘현지조사’를 위한 준비였다. 그 첫 단계는 학위논문의 챕터를 구성하는 일이었다. 일단 논문에서 다룰 시기를 1998년 초반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1997년 말부터 1998년 초까지 3개월 정도 집중적인 인터뷰를 한 후, 장학금이 만료되는 1999년 중반까지 논문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연구주제는 1987년 UMNO의 분열 이후 마하티르 개인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권위주의적 통치가 강화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1987년이 기점이 된 이유는 이 시기가 UMNO의 당권을 둘러싼 마하티르 총리와 라잘레이 함자(Razaleigh Hamzah) 무역산업부장관의 정치적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았고, 이를 전후로 마하티르 정치리더십의 질적인 변화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었다. 1987년 UMNO 당권투쟁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1969년 종족폭동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1969년에 발생한 말레이계와 중국계의 유혈 종족폭동을 전후로 말레이시아 정치체제의 성격이 ‘종족 간 타협’의 ‘협화주의적 행태’에서 ‘UMNO 중심의 일당우위적 지배 체제의 강화’로 질적인 변모를 했기 때문이다(Barracough 1985). 1969년 종족폭동과 1987년 UMNO 당권경쟁의 격화라는 상이한 갈등구조 하에서 말레이계 집권엘리트가 택한 체제유지(regime maintenance) 전략의 변화는 그동안 종족정치라는 외피에 가려져 있었던 말레이시아 권력정치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었다.

1997년 12월 현지조사를 떠나기 전까지 필자가 한 일은 챗터 별로 문헌자료를 정리하면서 현지에서 인터뷰할 대상을 선정하고 챗터 별 질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었다. 인터뷰 대상을 선정할 때의 첫 번째 기준은 1987년 UMNO 당권 경쟁과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과의 면담이었다. 특히 1987년 당시 마하티르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UMNO 출신 정치엘리트들과, 이후 마하티르의 위기극복과정에서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던 여·야 정치인, NGO, 학계 인사들과의 면담을 염두에 두고 질문 내용을 준비하였다. 당시 ‘과연 말과 글로만 접했던 이런 사람들을 내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그래도 무조건 만나야한다’라는 ‘절박함’이 수시로 교차했던 그 복잡했던 감정을 필자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1. 소중한 만남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초 계획했던 정치인들과 연락도 여의치 않았고, 연락이 되더라도 면담 일정을 잡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정치인들의 활동반경이 워낙 넓고 복잡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온 낯선 학생이 그들에게는 전혀 흥미롭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았던 것이다. 원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훨씬 당혹스럽고 조마심 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학계와 NGO 관계자들부터 접근하는 일이었다. 어차피 1987년 이후 마하티르의 권력의 사유화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학계와 NGO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들과의 면담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것도 솔직한 이유였다. 학자들의 경우 별다른 선약이 없어도 연구실을 방문해서 만나는데 부담이 없었다. NGO의 경우 ‘무작정 찾아가서 몇 시간이고 죽치고 있기’를 반복했다. 어느 날은 아무 소득도 없이 하루 종일 죽치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으나, 내가 마하티르정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죽이기 전략’은 의외의 수확을 안겨 주기도 했다. 우선 ‘내게는 너무 소중한(하지만 그들에게는 하찮은)’ 자료들이 사무실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전화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사무실 전화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내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한량처럼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과의 허물없는 대화를 통해 현지 상황을 보다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만났던 몇몇 활동가들과 맺은 인연은 너무도 값진 수확이었다.

필자가 방문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대표적인 NGO는 수아람

(SUARAM: Suara Rakyat Malaysia)이라는 단체였다. 수아람은 ‘말레이시아 민중의 소리(Voice of the Malaysian People)’라는 이름처럼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였다.⁷⁾ 수아람 방문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띠안 추아(Tian Chua)와의 인연은 각별했다. 당시 띠안은 노동자료센터(Labor Resource Center)라는 조그만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이도 필자와 비슷했고 마치 1980년대 초반 한국의 열성적인 학생운동을 연상시키는 정치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종족정치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한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띠안과의 만남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띠안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필자에게 호감을 갖고 대했다. 띠안을 만난 지 얼마 후에 그의 집을 방문해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정치를 넘나들며 밤을 새면서 얘기했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아마도 말레이시아를 전공하기로 한 후 ‘내가 현지 전문가와 이렇게 교감을 나눌 수 있구나’라는 감흥을 처음으로 느꼈던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지금도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거의 제일 먼저 띠안을 만나 어김없이 장시간 대화하곤 한다. 띠안 추아는 1998년 9월 안와르 사건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경찰에 연행되면서 말레이시아 개혁정국의 아이콘으로 부각되었고, 신생야당인 정의당(KeADILan) 부총재를 거쳐 지금은 인민공정당(PKR: Parti Keadilan Rakyat) 소속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⁸⁾

정치인들과의 본격적인 인터뷰는 3개월 일정의 절반이 지났을 무

7) 수아람은 1987년 마하티르정권이 UMNO내의 정적축출을 위해 공안정국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여당, 야당, 시민단체, 학계, 노동계는 물론 일반인까지 포함된 106명을 국내보안법(ISA: Internal Security Act)으로 구속하면서 이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기에 필자의 연구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었다.

8) PKR은 KeADILan이 PRM(Parti Rakyat Malaysia, 말레이시아민중당)이라는 사회주의성향의 정당과 통합되면서 출범한 다종족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2008년 제12대 총선에서 말레이시아의 제1야당으로 부상한 후, 2011년 현재 안와르 전 부총리가 당총재를 맡고 있다.

렵부터 시작되었다. 첫 출발은 리감힝 교수로부터 샴술(Shamsul Akmar)이라는 기사를 소개받으면서였다. 샴술은 말레이계 출신으로 중국계 일간지인 The Star에서 정치부문을 담당하면서 UMNO의 젊은 정치인들과 넓은 인맥을 과시했다. 특히 당시 UMNO 청년부(UMNO Youth)의 2인자를 자부했던 사이푸딘 나수떠온(Saifuddin Nasution)과 가까운 것 같았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개를 의뢰했고 흔쾌히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사이푸딘에게 연락을 했을 때 그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때 필자는 바로 샴술을 찾아가서 “당신 이름을 얘기하며 면담을 요청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를 전했다.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기자의 오기심을 자극하기로 한 것이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샴술이 바로 내 앞에서 사이푸딘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 날짜를 잡아준 것이다. 그렇게 필자의 정치엘리트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사이푸딘을 만나서 UMNO 청년부장인 히샤무딘(Hishammuddin Hussein)과 중국계 여당인 MCA 청년부장이었던 옹띠끼엣(Ong Tee Keat)을 소개받고, 또 이들을 통해서 다른 정치엘리트로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야당의 경우는 인터뷰를 성사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으나, 여당 정치인과 관료들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몇 차례 정치인들과의 면담이 성사되자 일은 쉽게 풀려나갔다. ‘학창 시절 미팅에서 새끼를 치는 방식’이 정치판에서 의외로 잘 적용되었다. 간혹 인터뷰 요청을 거절당하는 경우에도 ‘나도 너만큼 바쁘다’라는 호기를 부리는 여유도 생겨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차츰 비중있는 정치인들과의 면담도 주선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마하티르 정부의 초대 부총리를 지냈던 무사히뎀(Musa Hitam)과 1987년 마하티르와 UMNO 당권을 두고 격돌했던 라잘레이 함자(Razaleigh Hamzah)였다. 이들은 1980년대 초반 UMNO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을 지녔던 대표적인 정적이었으

나, 1987년 UMNO 전당대회에서 라잘레이는 총재(President), 무사히뎀은 수석부총재(Deputy President) 자리의 러닝메이트로 마하티르와 당권경쟁을 벌였던 UMNO의 최대 거물급 인사들이었다.⁹⁾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1980년대 초반 UMNO 내에서 지지기반이 약했던 마하티르가 권력유지를 위해 어떻게 정적을 활용했으며, 이들이 어떤 이유로 하나의 팀(Team B)을 결성해 마하티르에 대항했는지, 그리고 당권경쟁 이후 마하티르가 어떤 방식으로 UMNO는 물론 정치전반에 걸쳐 권력의 사유화 과정을 밟아갔는지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1998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필자가 만났던 다양한 정치엘리트들이 50명 가까이 육박했다. 일단 탄력을 받은 인터뷰 일정은 거침없이 진행되었고, 하루에 2-3명을 인터뷰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민망한 경우도 간혹 발생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야 상대방의 정치적 배경을 인지하거나, 심지어는 호주로 돌아와 녹음된 테이프를 푸는 과정에서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튼 1998년 1월부터 2월은 내가 경험했던 가장 힘들고 무더운 말레이시아였다. 인터뷰 장소를 옮기는데 현기증을 느껴 어쩔했던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데 마지막 인터뷰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내 심정은 더욱 절실하고 절박했었다. 2월 27일의 마지막 인터뷰를 끝으로 ANU로 돌아올 때 필자의 손에는 인터뷰를 녹취한 테이프들로 가득한 ‘작은 가방’이 들려있었다. ‘작은 방’을 가득 채울 정도의 자료를 화물로 실어 날랐던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1년 전 그 화물 속에는 수십 년이 넘는 말레

9) 내각책임제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집권연립의 최대의석정당인 UMNO의 총재와 수석부총재가 각각 총리와 부총리가 된다. UMNO는 수석부총재 외에 3명의 부총재(Vice President)가 있다.

이시아의 ‘정치역사’가 실려 있었다면, 당시 작은 가방 안에는 필자에게 그토록 치열했던 말레이시아의 ‘정치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양손에 ‘역사’와 ‘현장’을 쥐 내게 이제는 거칠 것이 없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다.

2. 정치상황의 급반전

호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녹취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50명 가까운 사람을 1인당 평균 2시간 가까이 인터뷰 했으니 그 분량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필요한 내용만을 찾아서 테이프를 듣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본격적으로 논문 작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든 테이프의 녹취를 푸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런데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그동안 마하티르 총리와 안와르 부총리의 갈등에 대한 소문이 정가에 무성하더니 결국 일이 터진 것이다. 1998년 9월 1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통제 실시, 9월 2일 안와르의 부총리 및 재무부장관직 해임, 9월 3일 안와르의 UMNO 출당, 이에 반발한 안와르의 전국적인 반마하티르 집회(reformasi) 주도에 이어 9월 20일 안와르가 국내보안법(ISA)으로 구금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설상가상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안와르가 경찰총수로부터 얼굴을 심하게 얻어맞은 사진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전송되었고, 안와르는 동성애와 권력 남용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안와르의 정치적 위상이 마하티르에 비해 결코 낮지 않았기에 안와르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단순한 충격 이상이었다.

독립 이후 현대정치사에서 말레이시아 정치지형은 1998년 9월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았다. 어쩌면 1969년 종족폭동과 1987년 UMNO의 분열

그 이상이었다. 특히 안와르 사태 이후 말레이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마하티르 정서와 反UMNO 정서로의 확산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1981년 집권 이래 마하티르가 누려왔던 폭넓은 대중적 지지와 UMNO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안와르 사태가 초래한 정치적 파장은 UMNO 정치엘리트들은 물론 마하티르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 말레이시아 현대정치사의 그 어느 시기에서도 현직 총리에 대해 이처럼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비난이 가해진 적이 없었다. UMNO가 양분된 1987년의 위기도 갈등의 파장이 UMNO 내부에 국한되었지 이번처럼 말레이계 일반 대중에까지 反마하티르, 反UMNO 정서가 파급되지는 않았다.

안와르 사태가 야기한 정치적 파장은 말레이계와 UMNO 정치에만 머물지 않았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1998년 9월 이후 장기간 지속된 개혁정국의 와중에서 종족 간 갈등이 거의 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1969년과 1987년의 경우와 지극히 대비되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지난 반세기 분열적인 정치행태를 보였던 야당세력이 정치적으로 결집되면서 종족갈등으로 대변되던 전통적 갈등구조가 탈종족적인 방향으로 재편되는 조짐마저 보였다. 또한 안와르 사태는 1987년 이후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던 정치·시민사회의 ‘탈정치화’(de-politicization)를 ‘재정치화’(re-politicization)로 급변시키며 마하티르정권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갈등이 심화된 배경은 무엇인가? 안와르 사태 이후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갈등구조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에 대해 마하티르정권과 정치·시민사회는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취할 것인가?

1998년 중반까지만 논문에서 다루려던 필자에겐 너무도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된 것이다. 1969년과 1987년에 이어 1998년이라는 집권체제의 위기상황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안와르 사태는 필자가 분석하고자하는 마하티르정권의 권력적

속성을 지나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마침 지도교수가 필자의 논문에 대해 “마하티르의 정치행태에서 너무 권력정치의 속성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던 참이었기에 안와르 사건은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터진 일이었다. ‘이게 과연 내게 기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인가?’ ‘벌써 7년이 다되어가는데 어찌란 말인가?’ ‘이러다가 정말 논문을 쓸 수는 있을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어찌면 너무도 간단한 문제였지만, 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내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필자가 내린 결론은 ‘그래, 다시 현장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현장이 아닌 ‘격전의 현장’으로.

이렇게 선택한 것이 1999년 7월말에서 9월 중순까지 약 2개월 동안의 현지조사였다. 2년 8개월의 자료수집, 3개월의 인터뷰에 이은 세 번째 현지조사인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사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기로 했다. 지난 현지조사는 주로 정치엘리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집중했으나, 이번에는 인터뷰 과정에서 필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논쟁도 하며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기로 했다. 인터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논문의 내용들을 현지전문가를 통해서 점검도 받고 싶었다. 인터뷰는 일단 지난 현지조사에서 만났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첫 만남이 아니었기에 면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용이했고,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보충할 질문의 내용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필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데 있어서 초면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기도 했다. 새로운 인터뷰는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권력투쟁 성격과 배경 등에 대해 증언이 가능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주로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측근 정치인들이 그 대상이었다.

다시 찾은 현지의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달랐다. 지난 현지조사에서 인터뷰를 했던 정치인들도 생각보다 필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특히 당시엔 여당이었으나 지금은 야당이 된 안와르 측근들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덕분에 필자는 안와르가 부총리 재임시절 싱크탱크로 활용했던 정책조사연구소(IKD: Institute Kajian Dasar)의 방문 연구자(visiting researcher) 신분으로 일련의 인터뷰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1999년 8월 말레이시아는 총선이 곧 실시될 것이라는 무성한 소문과 함께 정국이 요동치고 있었다. 특히 야당들은 집권연합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에 대항하여 대안전선(BA: Barisan Alternatif)이라는 야당연합을 결성하여 총선을 준비하느라 부산했다. 개혁정국의 아이콘으로 부각되었던 띠안 역시 안와르의 부인인 완 아지자(Wan Azizah)가 이끄는 공정당(KeADILan)의 부총재로서 야당연합의 멤버인 DAP, PAS, PRM과 정당별 공천지분을 협의하고 공동선거공약(common election manifesto)을 성사시키고자 여념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서 필자도 KeADILan, DAP, PAS, PRM의 최고위직은 물론 실무급 인사들과의 인터뷰들을 바쁘게 소화했다. 지난 현지조사 때 워낙 힘든 일정을 보내서인지 이번에는 한결 여유가 있고 재미도 있었다. PAS를 제외하고 KeADILan, DAP, PRM의 총재들을 모두 만나면서 정국 현황과 총선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필자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관찰자’와 ‘참여자’라는 양면을 경험했다. 주요 야당 총재들이 진지하게 필자의 의견에 관심을 보일 때는 왠지 모를 보람도 느끼곤 했다. KeADILan의 경우는 사이푸딘의 도움으로 안와르 자택에서 당 총재인 완 아지자와 핵심 당직자들이 모인 총선 전략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독특한 경험도 했다.

중국계 야당인 DAP의 립킷상 총재와는 ‘자료를 다 복사해간 한국인’이란 인연 이후 이미 몇 차례 면담을 했었다. 의회의 야당지도자 신분이기도 했던 그와의 인터뷰는 언제나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필

자도 이번엔 작정을 하고 나섰다.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총선을 목전에 두고 PAS와 DAP 등 전통야당들의 KeADILan에 대한 견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 필자의 생각에 다종족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KeADILan에 대한 이들의 견제는 당시 변화를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new politics)에 대한 종족정치세력의 반발과 다름이 없었다. 1998년 개혁정국에 의해 조성된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이 전통야당들의 종족적 이해관계 때문에 무산될 것 같다는 아쉬움도 컸다.

림킷상과의 인터뷰에서는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KeADILan과 PRM의 통합논의가 있는데, DAP도 이들과 합류할 의향은 없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분위기를 끌어갔다. PAS를 제외한 야3당의 통합이 당시 정치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커져가는 불신을 희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족정치의 틀에서 볼 때 DAP는 UMNO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수혜자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가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중국인의 전통처럼, 당신이 DAP를 아들인 림관앵(Lim Guen Eng)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크다. 당신이 수십 년간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 정치의 장래는 종족보다는 탈종족적 개혁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당신의 가장 큰 유산인 DAP를 해체할(dismantle) 의향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필자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대한 림킷상은 “개인적으로 DAP가 KeADILan, PRM과 통합하는 것에 반대는 없다. 하지만 DAP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림관앵이 당권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능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야당연합이 가능한 것은 함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분열했을 경우의 피해와 사회적 압력이 너무도 크고 거세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응답을 했다. 어떤 파격적인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도발적인 필자의 질문과 주장에 대한 그의 솔직한 심정과 당시 정치상황의 현주소를 감지하기에는 충분했다.

3. 현지에서 중간평가를 받다

세 번째 현지조사를 결심할 때 필자는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동안 작성했던 논문의 핵심 부분에 대한 현지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시도를 했다. 하나는 현지조사 기간 중 말레이시아사회과학회(Malaysian Social Science Association)에서 주최하는 말레이시아연구컨퍼런스(MSC: Malaysian Studies Conference)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MSC는 2년마다 말레이시아에서 3일에 걸쳐 개최되는데 특히 진보적인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회의였다. 필자는 이왕이면 논문의 핵심부분인 1987년 이후 마하티르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과정과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분열을 권력사유화의 불가피한 결과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하필이면 3일간 그 많은 동시회의가 열리는데 첫째 날 전체회의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언뜻 봐도 2백 명은 넘어 보이는 청중이 모인 대강당에서 발표를 하게 되다니...’ 그리고 지난 2년 반의 현지생활에서 필자가 그토록 피해 다녔던 조모 교수가 전체 진행을 맡고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게 발표 시간이 흘러버렸다. 현지조사 경험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MSC가 마무리되는 무렵 조모 교수가 점심을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는 심정으로 조모 교수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너무도 의외의 얘기를 들었다. “너를 처음 보았을 때 걱정이 됐다. 그런데 네가 많은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얘기를 들었다. 이번에 너의 발표를 들으니 이제야 제대로 된 경로에 접어든 것 같다” 그리고 덧붙이는 한 마디 말이 “학자는 글로써 싸우는 거다. 전장에서 군인이 총을 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학자가 자신의 글을 출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언제라도 출판을 하고 싶으면 내게 연락을 해라”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의 간극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현지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는 또 다른 시도는 논문의 핵심 내용을 전문가와 리뷰해 보는 일이었다. 당시 학위 논문의 5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5장은 1987년 UMNO 당권경쟁 이후 UMNO가 마하티르와 라잘레이 분파로 양분되어 1990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다루었다. 지난 2차 현지조사의 인터뷰 자료가 많이 활용되었고, 그 내용이 상당히 민감했기에 세심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았다. 당시 내용의 검토를 부탁한 사람이 라이스 야뎀(Rais Yatim)이었다. 라이스 야뎀은 1980년대 마하티르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을 역임했고, 1987년 마하티르의 반대편인 Team B 소속으로 UMNO 부총재(Vice President)에 도전했었다. 그 후 라잘레이와 함께 Semangat 46을 창당해 수석부총재(Deputy President)를 맡으면서 말레이시아 행정부 권력의 비대화에 관한 책을 집필했었다(Rais 1995). 라이스 야뎀이 논문 5장의 직접적인 당사자였기에 우려되는 면도 있었으나, 필자가 당시의 정황을 얼마나 현실감 있고 적실하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기대했던 코멘트를 현지에 있는 기간에는 받지 못하였으나, 2000년 5월 라이스 야뎀이 학술대회 참석차 ANU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1999년 9월 현지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경험을 하였다. 필자가 현지조사 기간 중 체류했던 IKD의 까마루던

자파(Kamardin Jaafar) 소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당시 정치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것이다.¹⁰⁾ 당시 까마루딘에게 주장했던 필자의 논지는 “안와르의 재판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안와르에게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만약 무혐의가 밝혀지면 안와르를 총리로 추대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야당은 임시총리(interim prime minister)를 지명하겠다”라는 내용의 선거공약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안와르의 옥중출마를 권유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총선의 대결구도를 ‘마하티르 대 안와르’로 단순화시켜야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취지에서였다. 이외에도 총선 이후 5년간 국가발전계획,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의 구성 등을 야당의 공동선거공약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총선 이후 야당연합의 지속성에 대한 불신을 잠식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필자의 주장을 들던 까마루딘이 지금 한 얘기를 옥중에 있는 안와르와 9월 초에 있을 야당대표들 간의 모임에 전달하겠으니 서면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설마 하는 심정이었으나, 그간의 참여관찰 보고를 한다는 생각으로 A4 용지 두 페이지 정도의 글을 남기고 호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귀국한지 얼마 후인 9월 20일에 야당연합이 옥중의 안와르를 총리후보로 지명과 함께 필자가 전달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포함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그 내용과 발표 시기가 너무도 절묘했다. 지금도 그 당시 뜨거웠던 격전의 현장에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 구석이 가득 차오르곤 한다.

10) 까마루딘은 안와르의 최측근으로 안와르 사태 이후 KeADILan이 아닌 PAS에 입당 하였으나 여전히 안와르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4. 반가운 재회

논문을 완성하기 전에 필자가 마지막으로 정치엘리트들과 인터뷰를 한 것이 1999년 중반의 현지조사 기간은 아니었다. 운이 좋게도 호주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2000년 5월 24일부터 3일간 ANU에서 1999년 총선 평가와 관련해서 호주-말레이시아 컨퍼런스(Australia-Malaysia Conference)가 열렸던 것이다. 당시 이 컨퍼런스는 여느 학술회의와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달랐다. 여당에서는 1999년 총선 전에 마하티르정권에 합류해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라이스 야뎀이 참석했고, DAP에서는 당 총재였던 림킷상과 초선의 원인 테레사 콕, KeADILan에서는 안와르의 최측근이었던 까마루딘 자파, PAS는 당 중앙위원이었던 하따 람리(Hatta Ramli), 마하티르의 정적 라잘레이는 정치특보인 샤버리 찻(Shabery Chik)을 참석시켰다. 학계에서도 크라우치 교수는 물론, 프란시스 로(Francis Loh), 윌리엄 케이스(William Case) 등을 비롯해 다수의 말레이시아 전공자들이 참여했다. 컨퍼런스 참석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필자가 3차 현지조사를 했던 1999년 중반 그 격전의 현장을 ANU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물론 필자도 토론자로서 그 대열에 합류했다.

사실 ANU에서 이런 컨퍼런스가 개최된 데에는 나뉠의 사연이 있었다. 당시 DAP 총재인 림킷상이 정치사회변동학과에 부인과 함께 방문인사(Visiting Fellow)로 와 있었다. 야당지도자로서 1999년 총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후, 심신이 지쳐있던 림킷상이 DAP 핵심인사들의 권고로 약 2개월 여정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것이다. 해외체류를 추진했던 테레사 콕이 마침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림킷상의 AUN 체류가 성사된 것이다. 마침 크라우치 교수가 인도네시아로 장기간 출장 중이어서 그 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필자와 림킷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는 ‘이웃’이 되었다.

림킷상의 방문은 필자에게 엄청난 행운이었다. 그가 잠시 캔버라를 벗어나 여행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천하의(?) 림킷상”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으니. 말레이시아 전공자라면 여기서 “천하의”라는 의미를 잘 알 것이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김대중(DJ)’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당시 필자는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그의 방문을 두드렸고, 점심 식사 후에는 여유로운 티타임을 갖곤 했다. 필자의 집에 림킷상 부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도 말레이시아 전공자로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이런 와중에 2년마다 ANU에서 개최되는 호주-말레이시아 컨퍼런스가 2000년 5월로 계획되었고 컨퍼런스를 조직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참석자 선정과 섭외는 당연히 당시 가장 ‘따끈따끈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필자의 몫이었다. 그 기회를 틈타서 “내가 현지로 가는 것이 아닌, 내가 있는 곳에 현지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논문 작성이 막바지로 향하던 시기에 이들과의 재회는 절호의 기회였다. 컨퍼런스 중에는 상당히 치열하고 날카롭게 서로 대립하기도 했지만, 외국에서의 만남이어서 그런지 모두들 한결 여유롭고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필자 역시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든 참석자들과 어색한 인터뷰가 아닌 사적인 교감을 나누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당시 이들과 ‘원 포인트 인터뷰’(one-point interview) 역시 논문을 마무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IV. 정치엘리트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

9년에 가까운 기나긴 ‘시간여행’이 마무리되었다. 이 기간 중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한 시간은 3년이 조금 넘었다. 그러나 필자에겐 나머지 시간도 현지에서의 생활이나 마찬가지였다. 어찌면 동남아 사람들보다 더 동남아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집중하는 ANU의 분위기, 현지조사를 마치고 또 다른 현지조사를 준비하던 시간들, 그리고 현지에서 맺었던 인연들의 ANU에서의 재회... 이 모든 순간들이 내겐 생소하고 격렬했던 현지와 다름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필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서 좌충우돌하면서 겪었던 정치엘리트들과의 인터뷰에 대한 경험과 방법을 공유하는 ‘공간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그럴듯한 이론에 바탕을 둔 방법도 아니다. 그냥 동남아에 대한 경험이 아주 없었고, 한국에서 석사를 마칠 때까지 정치엘리트 인터뷰가 연구조사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문외한이 겪었던 ‘시행착오’에 바탕을 둔 얘기다. 그래도 수많은 정치엘리트들과의 인터뷰를 성사시켰고, “지나고 나서 보니” 스스로 자부할 정도의 효과도 있었다.

1. 정치엘리트 인터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인터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무엇보다 문헌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핵심정보’(crucial information)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트 인터뷰라면 더욱 그러하다. 엘리트라면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그 능력은 그들의 지위가 아니라, 특정 정보를 소유하거나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Brians 2011; 366). 필자의 경우 인터뷰를 거듭할수록 논쟁적인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었고, 상대방의 답변의 내용과 질도 점차 만족스러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설문조사처럼 사전에 계획된 양식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인터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때로는 깜짝 놀랄 정도의 비공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인터뷰의 숨은 매력이다.

그 단적인 예가 1987년 UMNO 분열의 배경에 관해 라잘레이와 무사 히뎀과 수행했던 인터뷰였다. 1981년 UMNO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최대 파벌을 이끌었던 라잘레이는 자신이 마하티르를 지지한 이유는 UMNO 수석부총재와 부총리 자리에 대한 마하티르와의 “암묵적인 합의”(tacit agreement)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마하티르가 수석부총리에 대한 경선을 허용하고 무사 히뎀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이다. 한편 당시 수석부총리에 당선된 무사 히뎀은 1984년 UMNO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라잘레이와의 경선에서 다시 승리할 경우 그를 내각을 비롯한 모든 임명직에서 제외시키기로 마하티르와 “구두합의”(unwritten agreement)를 했으나, 마하티르는 전당대회에서 패배한 라잘레이를 계속 공직에 임용해 자신을 견제하게 만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하티르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정치행태가 정적이었던 라잘레이와 무사 히뎀으로 하여금 1987년 전당대회에서 합심하여 마하티르에게 대항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필자가 논문에서 인용하기 전까지 어떤 학술 연구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가치 있는 정보였다.

또 다른 사례로 1987년 UMNO 전당대회의 개표부정에 관해 필자가 접했던 정보를 들 수 있다. 당시 선거에서 전체 1,479표에서 43표 차라는 근소한 차이로 마하티르가 라잘레이와의 당권경쟁에서 승리로 거두었다. 그러나 필자가 접했던 정보는 라잘레이가 앞서던 개표 상황에서 정전과 재개표라는 헤프닝을 거치면서 마하티르가 승리한 것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당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으로써 선거실무를 책임졌던 사누시 주니드(Sanusi Junid)가 1990년대 중반에 라잘레이를 직접 찾아와서 고백한 내용이었다

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정보를 라잘레이의 최측근으로 정치특보를 맡고 있던 사버리 썸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접할 수 있었다.

정치엘리트 인터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정치현안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연구자가 현지에서 태어나서 배우지 않은 한 현지인과 같은 정치적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현지인의 시각이 반드시 더 현실을 반영하거나 객관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필자도 3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현지생활과 조사를 했어도 특정 현안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현실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말레이시아 정치현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데 각종 문헌자료와 대중매체가 핵심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정파의 정치엘리트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필자가 얻은 정보와 지식은 그야말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었다.

단적인 예는 1998년 안와르 사태 이후 말레이들에게 급속하고도 광범위하게 번졌던 反마하티르, 反UMNO 정서에 대한 이해였다. 도대체 반세기 동안 말레이계의 수호자 역할을 담당했던 UMNO와 그토록 대중적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마하티르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노골적인 반대와 공개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가? 당시 학계와 해외 언론은 물론 현지의 대중매체 등에서도 설득력있는 시원스런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필자가 이런 갈증을 푸는데 무사 히땀 전 부총리와의 인터뷰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는 만약 안와르가 마하티르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몰락했다면 그토록 광범위한 反마하티르 정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말레이계의 정서에서 권력투쟁은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러나 동성애와 구타를 통해 안와르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은 말레이의 정서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잔혹스럽고” “수치스러운” 행

위였다는 것이다. 말레이세계에는 “지배자에 대해 절대적 충성”을 해야 된다는 정서와 함께, “어느 지배자도 그의 백성들 중의 단 한 사람일지라고 [공개적인] 치욕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정서가 공존한다는 것이다(Andaya 2001; 47). 하물며 평범한 범부도 아닌 안와르에게 행해진 치욕은 “UMNO=말레이의 보호자”라는 전통적 후견 관계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안와르 사태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무사히땀과의 인터뷰는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정치엘리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현지 상황에 대한 필자의 이해의 폭 역시 넓어져 갔다.

인터뷰를 하다보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차이는 현지의 사정을 읽는 또 다른 재미를 제공하곤 한다. 필자가 경험했던 흥미로운 사례 중에 1997년 경제위기의 해법에 대한 중국계 엘리트들의 반응이 있다. 당시 말레이시아에는 IMF식 구조조정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가 팽배했다.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필자가 면담한 다수의 중국인 인사들은 공개적인 반대의 말과는 달리, IMF 구조조정이 수반할 종족 간 차별정책의 폐지 또는 완화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은근하게 IMF식 구조조정을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자존심의 문제라는 외형상의 이유와는 달리, 말레이계 엘리트들은 같은 이유로 IMF식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립 이후 누려왔던 말레이계 특권을 포기하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처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터뷰는 상대방의 개인적 성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기과시욕이 강하거나, 현학적이거나, 지나치게 진중하거나.... 혹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도 감지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뷰 과정에서 얻은 정치엘리트 개개인에 대한 느낌은 나중

에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 그들을 다시 접했을 때, 그들의 글과 말속에 담겨있는 행간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런 개인적 느낌이 특정현안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으나, 필자의 경우는 한 명의 정치엘리트를 최소한 2번 이상 만나면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정치엘리트들과의 인터뷰는 이들과 개인적 친분을 쌓으면 지역연구가로서 현지와의 끈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그 가치의 크기를 따지기 어렵다.

2. 정치엘리트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정치엘리트 인터뷰를 하면서 필자가 가장 크게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논문에서 활용하는가의 문제였다. 인터뷰를 활용하는데 통상적인 방법은 면담 이후 논문에 인용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인용 승낙은 물론 인용 문구의 내용이 맥락에 맞는 지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필자의 경우 논문의 주제도 그렇고 인터뷰의 내용에 워낙 민감한 내용도 많았고, 인터뷰 대상이 대부분 정치인들이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면담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고, 인터뷰를 할 당시의 심정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의 마음이 같을지도 의문이었다(당시 말레이시아 정치인들 사이에서 지금처럼 이메일이 상용화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허락도 없이 면담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법적, 윤리적,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에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현지조사를 떠나기 전 지도교수와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인터뷰 내용을 녹취할 것을 권고 받았다. 그리고 ANU에서는 학생들이 논문 작성과정에서 얻는 자료를 도서관에 보관하고 제3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필자가 인터뷰를 녹취하게 된 공식적인(?) 배경이었다. 아무튼 필자는 100여 차례에 달하는 정치엘리트들과의 인터뷰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녹취를 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녹취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 주위 환경 때문에 녹취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필자가 만났던 대부분의 인사들은 녹취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관대했다.

인터뷰 내용을 논문에서 인용하는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았고, 동의를 받는 내용부터 녹취를 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문제의 소지를 줄였다. 하지만 인용 부분을 재차 확인하는 일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대신 인용된 모든 내용이 녹취되어 있었기에 만에 하나라도 생길 문제에 대해 차선의 대안은 마련해 놓은 셈이었다. 지나치게 민감한 내용이나 인터뷰 대상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기밀’(confidential)로 처리했다.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민감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이 얘기되는 경우 바로 ‘지금의 내용을 논문에 인용해도 되겠는가’라고 되묻는 방식으로 재차 승낙을 받으며 면담을 진행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내용 때문에 크게 곤란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 1999년 8월 23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무사 히뎀은 살아있는 권력의 “경외스런 힘”(awesome power)을 강조하며, “1986년 당시 내가 부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대립했을 경우 마하티르는 10명의 남자를 들이대며 나를 동성애자로 몰아갔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필자는 이를 학위논문에서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갈등의 본질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문제임을 시사하는 취지에서 인용했다.

그런데 2002년 초반 말레이시아 국회에서 마하티르정권의 정치적 음모의 단면을 시사하는 증거로 필자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하면서 온종일 국회가 시끄러웠던 것이다. 2002년 ANU에서 열린 호주-

말레이시아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PAS 국회의원이 자신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시 국회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지를 마치 영웅담처럼 필자에게 얘기했었다. 인터뷰 내용이 PAS의 기관지인 하라카(Harakah daily)에 보도되고, 급기야 무사 히땀이 ‘당시 수많은 인터뷰를 했기에 그런 특정 내용에 대한 기억이 없고, 학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터뷰에 대해서 특정 정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인 말레이시아끼니(Malaysiakini)에 의견을 피력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때문에 필자와 지도교수 그리고 학과장이 긴급회의를 했고, 녹취된 부분을 같이 확인했으나 다행히도 그 내용에 한 단어의 오류도 없었다. 그러나 만약에 말레이시아 국회나 법정에서 녹취 테이프의 공개요청이 올 경우는 학문적 목적의 인터뷰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로 학과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 다행히 공개요청은 오지 않았으나, 당시 무사 히땀 전 부총리의 곤란했던 입장에 대한 미안함과 혹시라도 잘못 인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가슴이 철렁했었다. 훗날 논문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을 때 무사 히땀을 찾아갔었다. 마침 해외출장 중이어서 만남이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책 속지에 필자의 심정을 담은 메모를 남김으로써 고마움과 미안함을 대신했다.

정치엘리트 인터뷰를 하면서 필자가 겪었던 또 다른 어려움은 인터뷰 대상의 균형을 맞추는 일과 연구 내용에 적합한 인터뷰 대상을 찾는 것이었다. 특히 야당 인사를 섭외하는 것보다 정부여당 측에서 관련자를 찾아 면담을 성사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연구주제의 특성 때문에 야당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지나친 편중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된 ‘절심함’ 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겠는가? ‘면담을 성사시키

지 못하면 반쪽짜리 논문이 되고, 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해봐라. 절심함은 저절로 생긴다' 필자의 경우는 야당 인사를 만나서 여당 정치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을 가끔 활용했는데 이 방법이 의외로 효과적이었다. 특정 이슈에 대한 적합한 인터뷰 대상을 물색할 때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자가 누군지 물어보고, 가능하면 섭외까지 부탁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조금씩 풀어갈 수 있었다.

인터뷰 내용을 일일이 녹취하는 것도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었다. 인터뷰 내용을 녹음할 경우 그 내용을 놓칠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눈앞에 녹음기를 들이대고 있을 경우, 상대방이 질문에 답을 할 때 주저하거나 진솔한 대답을 꺼리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한다. 특히 여당 측 인사들과 면담할 때 그런 경향이 강하다. 필자의 경우 정말 중요한 인터뷰인데 녹취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비밀스럽게 녹취를 한 적도 두 번 정도 있었다. 그리고 녹취를 하는 경우 역설적이지만 인터뷰에 집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어차피 녹음되고 있으니 대화 내용을 놓쳐도 된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이는 대답의 내용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질문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때문에 필자는 녹음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다는 경우를 항상 고려하며 인터뷰를 수행했던 기억이 난다.

녹음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필자의 경우 녹취를 푸는데 현지조사를 한 기간과 비슷한 시간을 들였다. 처음에는 그날 녹음한 것은 그날 풀려는 시도도 해보았으나 인터뷰의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내 포기했다. 현지 도우미를 활용해서 녹취를 푸는 방법도 써보았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 경우 오히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녹취를 푸는 내용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결국 필자가 다시 풀게 되면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민감한 내용

의 인터뷰를 제3자가 듣고 정리하는 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처음 몇 차례 시도하다가 이내 포기했다. 결국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특정 부분만 인터뷰 당일에 정리하고, 나머지는 호주로 돌아와서 장시간에 걸쳐 일일이 녹취를 풀 수밖에 없었다.

3. 효과적으로 정치엘리트 인터뷰하기

정치엘리트들과의 짧은 면담을 통하여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필자 역시 처음부터 만족스런 인터뷰를 수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스스로 만족했던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도 필자가 경험했던 효과적인 인터뷰 방법을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일부는 성공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내용들이다.

(1) “인터뷰 준비하기”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우선적으로 녹음기, 사진기, 필기 도구를 점검해야 한다(필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진기를 챙기지 못했었다). 인터뷰 대상에게 연락을 취하기 전에 어디서 만날 것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터뷰 장소에 따라 대화의 내용과 녹음의 품질이 달라진다. 가능하면 식당이나 커피숍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동남아 지역에서 흔하게 보이는 실링팬 아래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지속되는 바람소리가 의외로 녹음의 질을 떨어뜨린다. 공공장소는 소음도 심하고 인터뷰 대상이 자신의 견해를 마음껏 피력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장소가 아무리

떨어도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갈 생각을 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인터뷰 대상의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것도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터뷰 성사시키기”

상대방의 배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상대를 알아야 맞춤형 공략을 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연락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치인의 경우 비서나 보좌관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면 인터뷰 성사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성사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 직통 연락처를 안다면 상대방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다(물론 예의를 갖추어서). 이는 단순히 면담의 성사가능성을 높이는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과 의도를 갖고 인터뷰를 요청하는지 혼선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다. 만약 비서나 보좌관을 통할 경우엔 ‘가급적 자신을 복잡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우는 ‘호주의 ANU에서 말레이시아 정치로 박사과정에 있는 한국학생이다. 말레이시아의 전공자인 크라우치 교수가 당신의 보스를 만나보라고 그랬고, 얼마 전에 만났던 말레이시아의 누구 누구도 비슷한 추천을 했다’는 방식으로 소개를 했다. 상대방이 ANU나 크라우치 교수를 잘 알리도 없고, 복잡하게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비서의 판단만으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인터뷰를 성사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열심히 연락하고 거절을 부담스러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젊음과 배우는 자의 특권 아니겠는가?

(3) “자기 소개하기”

상식적인 얘기지만 인터뷰의 첫 출발은 상대에게 자신을 소개하

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때 범하기 쉬운 오류는 상대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전화로 섭외할 때 이미 간략한 소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엘리트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약속을 잡을 때 했던 소개의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다. 결국 연구자가 자기소개를 소홀히 하면 상대방은 연구자의 배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인터뷰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소개는 연구자의 개인적 배경과 연구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하는 것이 좋다. 필자는 말레이 정치엘리트들과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는 짧게 몇 분이라도 말레이어로 대화를 유도했고 이것이 인터뷰의 출발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 “초반부터 준비된 연구자임을 보여줘라”

처음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전체 인터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이고 쉬운 질문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논쟁적인 질문을 할 것인가? 필자의 경험으로는 인터뷰 초반에 자신이 전공지역 혹은 인터뷰 대상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춘 연구자임을 보여 주었을 때 효과가 좋았다. 인터뷰 대상이 관여했던 특정한 사건을 언급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Leech 2002). 예를 들어 “당신이 예전에 어떤 사건에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무슨 배경에서였는가?”와 같은 방식이다. 이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답변을 형식적이지 않게 만드는데 유용하다. 인터뷰 시간은 보통 1시간 전후로 생각보다 짧다. 그리고 상대방이 일정에 쫓기는 정치인이기에 인터뷰 중간에라도 자리를 뜨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급적 빨리 핵심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5) “솔직하고 과감하게 접근해라”

정치엘리트들과 인터뷰를 할 때 흔히 직면하는 어려움은 ‘어떻게 예의를 갖추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필자의 경우 전직 부총리, 전·현직 장관, 야당대표, 국회의원, 고위관료 등 많은 고위층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했기에 이런 문제에 종종 직면했고 부담감도 컸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대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물급이라고 해서 전혀 긴장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상대방도 스스로의 품위유지에 신경을 쓰는 존재이기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소위 거물급들과 인터뷰를 할 때는 오히려 솔직하고 과감하게 접근했다. 예를 들어, “내가 외국학생이고 현지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의 질문이 당신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괜찮은가?”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다. 십중팔구 “no problem”이라는 응답이 온다. 그때부터 과감하게 가는 것이다. 무사히땀, 라잘레이, 립킷샹 등과의 만남에서 주로 활용했던 방법이었다. 이런 접근은 다른 정치엘리트들에게도 미묘하고 민감한 질문을 할 경우 어김없이 활용되었고 효과만점이었다.

(6) “의도하는 답을 유도해라”

정치엘리트들을 만나다보면 의외로 길게 답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내용도 두서가 없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핵심 언저리를 답답하게 돌고 있다. 이런 경우 질문자가 대신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서 재차 질문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얘기는 이러이러하다는 말이군요?”라고 의도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You mean...”이라는 표현으로 가면 무난하다. 때때로 상대가 원하는 답을 의도적으로 피해가거나 혹은 깜빡 잊고 넘어가는 경우도 접하게 된다. 그때도 “이런 면은 어떻

게 생각하는가?(how about....)”라는 방식으로 대화를 좀 더 끌면서 다른 방식의 표현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지금 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혹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표현도 대답의 연장을 유도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법이다. 상대방의 입에서 만족스런 응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명석을 깔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자신의 동선을 알려라”

정치엘리트들과 인터뷰를 하다보면 서로의 정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라이벌도 있고,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은 특정 정당 내부의 갈등관계도 있다. 정치엘리트들과의 인터뷰는 정보만을 수집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 그들이 나를 활용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 이때 가장 자연스런 방법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에 대한 동선을 알리는 것이다. 이때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필자도 립킷상과 무사 히땀의 연결책(?) 노트를 했던 흥미로운 경험이 있다. 립킷상에서 무사 히땀과의 면담 계획을 얘기했을 때, 필자에게 ‘자신이 무사 히땀을 은밀히 만날 의향이 있는데 무사 히땀의 의향을 좀 알아봐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사 히땀은 “개인적으로 립킷상을 만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남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답을 주었다. 혹시라도 이러한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가 구설수에 오르더라도 양측은 ‘외국인 연구자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치부하면 되는 것이다. 왜 당시 립킷상이 무사 히땀을 은밀히 만나고자 했을까? 당시 립킷상의 아들인 립관앵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DAP와 정부 간의 모종의 밀약설 등 은밀한 소문들이 무성했는데, 양자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필자는 그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정파의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필자가 만나는 자신의 정적들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그것도 정적에게) 흘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일이다. 인터뷰 대상이 연구자를 활용하는 것이 지나치면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보다는 정적을 의식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인터뷰 윤리의 기본을 제대로 숙지하고 행동하면, 연구자의 동선을 인터뷰 대상에게 알리는 것은 그만큼 연구자에 대해 상대방이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다.

(8) “상대방의 스타일을 빨리 파악해라”

인터뷰를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1시간 남짓의 인터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뜩이나 개성이 강한 정치인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그들만의 독특한 행태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인터뷰의 성패를 좌우한다. 필자도 ‘침묵형’, ‘설교형’, ‘내공시험형’, ‘현학형’, ‘과시형’ 등 다양한 스타일의 정치엘리트들을 접했고, 이런 독특한 행태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 말을 많이 하는 설교형, 현학형, 과시형 등은 ‘시간대비 남는 것이 없는 장사’였다. 필자의 경우 이때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언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친교를 쌓는 만남의 의미를 부여했다. 길게 보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지역연구자의 현지 네트워크가 다양하고 풍부해진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문제는 ‘내공시험형’과 ‘침묵형’이다. 이들은 대답이 짧거나 말수가 적어 질문을 하는 연구자에게 무척 곤혹스런 대상이다. 필자는 이런

스타일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논쟁을 유도했다. 인터뷰 대상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할 때, 특정 이슈에 대해 상대방과 반대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그에 대한 응답을 끌어낼 수 있다(Nadel 1939).

총리실 차관이자 UMNO 최고위원이었던 이브라힘 사아드(Ibrahim Saad)는 필자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인물이었다. 그와 두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 1999년 8월의 인터뷰가 ‘침묵형’의 압권이었다. 이브라힘은 안와르의 최측근으로 안와르의 출당조치 때 어느 누구보다 동반탈당의 선두주자로 예견되었으나, UMNO에 잔류했던 인물이었다. 안와르 사태 이전 그와 인터뷰를 했던 필자에게 이브라힘은 너무도 흥미로운 존재였고, 1999년 8월 2차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터뷰를 시작하기도 전에 “황, 우리 켄터키 치킨이나 시켜먹자”며 주문을 하곤, 간간히 실없는 얘기만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1차 인터뷰 때의 다소 수다스럽던(?) 모습을 기대했던 필자는 무척 당혹스러웠다. 주문한 치킨을 다 먹을 때까지도 묻는 말에는 묵묵부답... 시간은 40여분이 지나고... 이러다가 면담이 끝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결국 필자가 택한 방법은 “좀 불편한 얘기를 해도 좋은가”라며 동의를 구하고, 안와르 사태 이후 정치지형과 민심의 변화를 비롯해 필자가 그로부터 듣고 싶었던 얘기들을 20여분 정도 쏟아내며 퍼부었다. 결국 면담 말미에 ‘네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네가 다했다’라며 길었던 침묵을 깨고 짧게나마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었다. 비록 논문에 활용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는 못했으나, 당시 UMNO에 잔류했던 안와르의 측근들의 정치상황과 현실인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9) “마지막 5분을 잘 활용해라”

인터뷰를 하다보면 시작은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마무리에 소홀하기 쉽다. 필자가 100여 차례에 달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대부분의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마지막 5분’이라는 노하우가 있었다. 인터뷰를 많이 성사시켰다고 해서 다음 인터뷰의 성사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인터뷰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개별 인터뷰의 성사여부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는데 특정 인터뷰 말미의 ‘5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 ‘마무리 5분’은 다음 인터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다시 말해서 ‘맨땅에 헤딩’을 하지 않으려면 ‘새끼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인터뷰 마지막 5분을 다음 인터뷰 대상을 소개받고 가능하면 섭외를 의뢰하는데 활용했다. 물론 이 전략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밑져야 본전’이다.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다음 대상을 소개받는 것은 다음 인터뷰의 성사가능성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연구주제에 대한 균형 잡힌 인터뷰 대상을 소개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 비슷한 정치성향의 정치엘리트 소개를 의뢰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특정 이슈에 대해 대립되는 의견을 지닌 인사를 소개받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떠나서 연구자의 생각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필자는 여야를 불문하고 서로 소개를 의뢰했고 제법 효과적이었다. 이때 소개를 의뢰하기 전에 ‘상대를 잘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상식이다. 묘한(?) 뉘앙스로 물어보아야 효과가 크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정치인들은 웬만해선 문의하는 대상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

(10) “핵심정보와 분위기를 가능한 빨리 메모해라”

인터뷰를 끝내고 나면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필자가 인터뷰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변의 가까운 커피숍이나 벤치를 찾는 일이었다. 바로 전에 들었던 핵심정보와 인터뷰 과정에서 느꼈던 분위기나 특징 등을 메모하기 위해서다.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 근처 가까운 그늘에서 서둘러 메모를 했다. 인터뷰 내용을 녹취했다고 방심해서는 안된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많은 인터뷰를 하다보면 누구에게 어떤 중요한 정보를 들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럴 때 간단하게라도 인터뷰마다 핵심내용과 특징을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녹취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인터뷰 과정에서 느꼈던 독특한 분위기나 연구자의 단상은 면담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급변하는 정치상황 속에서 침예하게 대답하는 정치엘리트들과의 인터뷰에서는 귀와 입으로 전달되는 정보 못지않게 눈빛과 몸짓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문헌자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인터뷰만의 매력이다. 그러나 지나친 상상력은 인터뷰의 본질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임을 명심해야한다.

V. 긴 여정을 마치며: “인연 맺기”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하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별집과 똑같은 형상을 한 ANU 콤스(Coombs) 빌딩 3층의 한 구석에 자리한 연구실. 밖으로 보이는 것은 별집 입구를 연상케 하는 빼곡하게 들어찬 조그만 창문들과 음산한 기운을 가득 품은 오래된 검트리(gumtree)들. 방안을 둘러보니 양쪽 벽면이 모자라 바닥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북

사해온 자료들로 빼곡하였다. 이 속에서 용케도 8년 8개월 8일이라는 시간을 버텼구나. 만감이 교차했고 모든 것이 고맙게 다가왔다. 심지어 처음 이곳에 와서 이방인처럼 지냈던 낯선 시간들조차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 같았다. 현지조사 기간 중에 만났던 수많은 현지인들의 형상이 스치면서, ‘내가 이들과 공유했던 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었구나’라는 감흥에 잠겼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필자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현지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인연 맺기’이다. 필자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엘리트들이었지만 모두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그 중에는 현지생활을 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했던 한국인 유학생 가족과 교민들도 있었고,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현지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던 현지인(informer)들도 있었다.

누군가 필자에게 정치엘리트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하면 “과감하게 연락하고, 두 번 이상은 만나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 첫 번째 면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단순한 정보라면, 두 번 이상의 면담을 통해서만 ‘인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뷰를 한 모든 상대방과 인연의 끈을 이어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위과정에서 현지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지역연구자로서의 현지조사마저 끝난 것은 아니다. 어쩌면 현지에서 돌아오면서부터 또 다시 현지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지역연구자의 운명이다. 그래서 현지에 있을 때보다 현지에서 떠나 있을 때 더욱 현지에 있는 것처럼 생활해야 할지 모른다. 두 번 이상 면담을 한다는 의미는 연구자가 언제라도 현지의 전문가들과 상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첫 인터뷰 이후 두 번 이상 만남을 이어간 것이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였으니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 첫 번째 면담을 성사

시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후에 인연의 끈을 이어 간다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꾸준한 노력과 성의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 현지조사의 기억을 돌이켜보면서 필자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한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겠다는 나의 ‘실리’를 찾기 위해 시작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를 알게 되면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다. 현지의 정치상황을 어느 정도 알아가면서 내가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들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알량한 ‘욕심’도 생겼다. 그리고 욕심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나의 실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필자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환류’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혹시 내가 나의 시각에서 남을 관찰하고 이해해서 기록하는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의 함정에 빠져갔던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앞선다.

어디선가 지역연구를 ‘항구’라는 의미로 설명하는 글귀를 읽었던 것이 기억난다. 멀고 가까운 외지에서 수많은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 이곳은 단순히 외지의 사람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공간’이 아닌,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현지의 문화와 이해를 함께 실어 보내는 ‘능동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거창한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경험했던 정치엘리트들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조사를 ‘항구’가 지니는 환류의 의미에서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주제어 : 말레이시아정치, 정치리더십, 통일말레이국민기구, 정치엘리트 인터뷰, 현지조사연구방법

<참고 문헌>

- Andaya, B. W. and L. Y. Andaya. 2001. *A History of Malaysia*. Houndmills: Palgrave.
- Barracrough, Simon. 1985. "The Dynamics of Coercion in the Malaysian Political Process." *Modern Asian Studies* 19(4).
- Brennan, Martin. 1985. "Class, Politics and Race in Modern Malaysia." in Richard Higgot and Richard Robison (eds.). *Southeast Asia: Essay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Structural Chan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Brians, Craig Leonard, Lars Willnat, Jarol B. Manheim, and Richard C. Rich, eds. 2011. *Empirical Political Analysi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Boston: Longman.
- Case, W. 1996. *Elites and Regimes in Malaysia: Revisiting a Consociational Democracy*. Clayton: Monash Asia Institute.
- Cham, B. N. 1975. "Class and Communal Conflict in Malay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5(4).
- Halim, Fatimah. 1982. "Capital, Labour and the State: The West Malaysian Cas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12(3).
- Hwang, In-Won. 2001. *Changing Conflict Configurations and Regime Maintenance in Malaysian Politics: From Consociational Bargaining to Mahathir's Dominanc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 _____. 2003. *Personalized Politics: The Malaysian State under Mahathir*. Singapore: ISEAS.
- Jomo Kwame Sundaram. 1988. *A Question of Class: Capital, the State, and Uneven Development in Malay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Leech, Beth L. 2002. "Asking Questions: Techniques for Semistructured Interview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5(December).
- Lim, Mah Hui. 1980. "Ethnic and Class Relations in Malay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10(1-2).
- Mauzy, Diane K. 1983. *Barisan Nasional: Coalition Government in Malaysia*. Kuala Lumpur: Marican & Sons Sdn Bhd.
- Means, Gordon P. 1991. *Malaysian Politics: The Second Generation*.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Milne and Mauzy, D. K. 1999. *Malaysian Politics under Mahathi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ilne, R. S. 1967. *Government and Politics in Malaysia*. Boston: Houghton Mifflin.
- Nadel, S. F. 1939. "The Interview Technique in Social Anthropology." in F. C. Bartlett, M. Ginsberg, E. J. Lindgren, and R. H. Thouless, eds. *The Study of Society*.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 Ongkili, James P. 1985. *Nation-building in Malaysia, 1946-1974*.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Rais Yatim. 1995. *Freedom under Executive Power in Malaysia: A Study of Executive Supremacy*. Kuala Lumpur: Endowment Sdn. Bhd.
- von Vorys, Karl. 1975. *Democracy without Consensus: Commun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in Malaysi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05. 30. 투고; 2013. 06. 14. 심사; 2013. 06. 24 게재확정)

<Abstract>

Fieldwork Through Interview With
Malaysian Political Elites:
Methodological Reflection

HWANG In-W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his doctoral dissertation, the author analyses the nexus between a dynamic conflict structures in Malaysia and regime maintenance strategies in that country. Through interviews with various Malaysian political elites, the author figures out how the ruling political elites, especially UMNO leaders and Mahathir Mohamad,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own political hegemony whil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a fairly high level of regime stability. Although, to meet with new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the UMNO-led ruling elites has adapted to changing expectations of Malaysian society, the single most essential motive for regime change and maintenance is to sustain its own political power.

It is nothing particular to mention that interviews with political elites are considered as an essential research method especially in analysing contemporary political issues. It is, however, also noted that there are very limited informations and resources of how to conduct an academic

interview especially with various political elites. This paper shares field research experience of interviews with Malaysian political elites during the author's Ph.D. candidate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in the 1990s. The author conducted a series of field research in Malaysia for about three years during his doctoral candidate. During his three-year long fieldwork, the author had more than one hundred intensive interviews with various Malaysian political elites covering scholars, journalists, civil society activities, ruling and opposition politicians. In this paper, the author shares his personal experience of how to overcome various obstacles and to effectively handle with various political elites covering wide spectrum of political ideology.

Keywords: Malaysian Politics, Political Leadership, UMNO,
Interviews with Political Elite, Field Research
Methodology

